

# 계절마다 다른 채색... 단장한 여인 마냥 고와라

## 春 철쭉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 ⑩ 무등산 4계

국립공원 무등산의 사계절을 여는 봄 소식은 진달래가 가장 먼저 전해준다. 이어 5월이면 철쭉이 절정을 이루고, 여름이면 곳곳의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탐방객의 무더위를 식혀준다. 가을 무등산은 억새밭이 장관이다. 이렇듯 무등산의 경치는 철 따라 그 모습이 바뀌지만, 그 중에서도 겨울옷이 가장 신비롭고 화려하다. 겨울만 되면 무등산으로 등산 인파가 몰려드는 것도 이때문이다. 무등산의 사계를 들여다 본다.

◇진달래-철쭉에 수줍게 물든 무등산의 봄=무등산의 봄을 여는 이는 진달래다. 무등산 정상에 잔설이 남아있는 3월 중순이면 용추계곡과 원효계곡, 증심사 계곡에서부터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한다. 봄이 진행됨에 따라 진달래도 산 능선을 따라 뿔어 올라가는데, 4월이 되면 철쭉이 가세하면서 온 산이 연분홍빛으로 물드는 대장관을 연출한다.

5월에 절정을 이루는 무등산 철쭉은 장불재를 넘어 규봉에 이르는 산길 좌우 구간이 절경 중의 절경으로 꼽힌다. 특히 입석대와 서석대의 바위틈에 숨어 피어나는 철쭉의 모습은 직접 보지 않고선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환상적이다. 철쭉은 광주시의 시화(市花)이기도 한데, 은은하고 따스한 광주시민의 후한 인성과 다정다감함을 상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무더위도 끔찍 못하는 무등산의 여름 계곡=무등산은 동서남북 중 동쪽을 제외하고 대표하는 큰 계곡이 흐른다. 서쪽으로는 증심사 계곡이 있고, 남쪽은 용추계곡, 북쪽은 원효계곡이 있다. 용추계곡의 발원지는 장불재 서쪽 200m 지점 아래서 솟는 '샘골'로, 해발 900m의 넓은 고원지대에서 흘러내린 물이 모여 만들어진 계곡이다. 용추계곡의 길이는 4km로, 계곡 양쪽 기암절벽 사이에 낮에도 하늘을 보기 어려운 정도의 울창한 천연림이 있어 여름철이면 등산객과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용추계곡의 가을 단풍과 겨울 설화도 무등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경으로 꼽힌다.

원효계곡은 무등산 정상에서 서북쪽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이 모여 만들어진 곳으로, 주검동 계곡을 따라 의상봉 아래에서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북으로 흘러 충효리까지 이어진다. 9km 길이의 원효계곡은 '원효굴'이라고도 하는데 주검동 골짜기에는 긴덕령 장군이 칼을 만들었다는 전설과 함께 쇠를 달구었던 흔적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야철(冶鐵)터였음이 입증되기도 했다.

증심계곡은 중머리재의 서쪽 기슭에서 발원해 새인봉 아래 약사사의 뒤쪽으로 흘러 증심사를 지나 지원동에서 광추천과 합류하는 길이 6km 규모의 계곡이다. 주변 경관이 용추나 원효계곡에는 못 미치지만 도심과 가깝고 접근성이 좋아 여름철 인기 피서지로 꼽힌다.

무등산을 대표하는 폭포로는 용추폭포와 원효폭포가 있는데, 아쉽게도 두 폭포 모두 사진으로만 남아있다. 여름철 물맛이 명소이기도 했던 두 폭포 중 용추폭포는 지난 1937년 제 2수원지를 만들면서 수질오염을 막는다면 광주시에서 폭파했고, 원효폭포는 산장식 관광호텔이 지어지면서 물맛은 모습이 미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없애 버렸다고 한다. 이외에 무등산을 대표하는 폭포로는 심우지기(시무지기)폭포가 있는데, 화순군 이서면 용강마을에서 심우지기 계곡을 따라 4km쯤 올라가면 해발 700m 능선에 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무등산의 가을 역새=속칭 산갈대라고도 하는 역새는 무등산의 가을을 대표한다. 무등산 역새밭 중 절경은 삼밭실을 비롯한 장불재와 규봉으로 가는 능선이다. 10월 하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면 역새는 하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비치는 역새의 모습은 감탄사를 절로 자아내게 한다. 역새와 함께 무등산의 가을 단풍은 규봉이 단연 최고다. 꼬막재 또는 장불재에서 규봉으로 가는길과 규봉의 바위틈에 자라난 단풍잎의 색깔이 너무나 선명하고 화려해 단풍철이면 마치 온 산이 불타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다.

◇신비롭고 화려한 무등산의 겨울 설경=무등산은 따뜻한 남쪽지역인 광주·전남에서 보기 드문 설화 빙경을 선사한다. 해발 800m 이상에서 펼쳐지는 눈꽃이 나뭇가지와 억새잎, 바위틈에 내려앉으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한낮의 햇살에 녹았다가 다시 새벽에 얼고를 반복하는 동안 고드름이 얼면서 자연이 만든 위대한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산행이 힘든 겨울에도 무등산을 오르는 등산객이 줄을 잇는 이유이다.

## 夏 계곡



## 秋 억새



## 冬 눈꽃

